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의 분야가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인들의 임무가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울러 직장에 있어서의 노동환경과 작업형태도 변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산업보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보건의 임무는 중차대하다.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산업보전에 관한 법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보건교육 등 넓은 분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산업보건의들이 직무수행을 해나가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본 칼럼을 만든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바뀌게 되는 것이 있겠지만 현실에 입각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매월 연재하여 질의(Q) 응답식(A)으로서 알기 쉽게 집필하여 본 것이다.

(조규상)

産業保健 管理體制

Q1.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공포되었고 동 시행령은 1954년에 공포되었으며, 근로보건관리규정은 1961년에 공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었다.

당시 보건관리자는 의사로서 산업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고 그 밑에 보건관리에 필요한 요원을 두도록 되었다.

그후 1981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공포하고, 여기에서도 보건관리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고 그 밑에 보건담당자를 두도록 되었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은 전문이 개정되었고, 이로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 대하여 산업보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되었으며, 그 자격은 의사, 간호사, 환경관리기사, 4년제 대학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에서 산업보건 또는 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 소정의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되었다. 또 동법에서는 산업보건의의 규정을 별도로 만들고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법에서 의사는 산업보건의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의사인 보건관리자(전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보건의(촉탁)를 두지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Q2. 산업보건의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産業保健醫와 保健管理者

A.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현재 의사로서 노동부가 정한 산업보건의 신규교육(21시간) 또는 보건관리자 의사 신규교육(34시간)을 받으면 의사는 누구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넓은 분야에 걸쳐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구미 각국에 있어서는 의대졸업후 1년 또는 2년간의 연수를 거쳐 산업의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의학 전문의 과정이 신설될 계획으로 있다.

외국의 산업의 제도를 표 1에서 참고할 수 있다.

Q3. 우리나라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의 현재 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A. 현재 법에 의하여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중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업장(5인 이상)이 약 13만개가 있는데 이중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장수는 약 12,000개소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부분의 산업보건의가 개업의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3개 사업장을 담당한다고 하면 약 4,000명의 산업보건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산업보건의로서 교육을 받은 의사수는 약 1,000명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산업보건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업장에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약 120명이 있다.

참고로 각국의 산업보건의의 제도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외국의 산업보건의

국명	산업의	인원	산업보건기관	교육
영국	EMAS	F 70 P 50	단독(2,000이상)	M.Sc 2년
	IMO	F 600 P 2,000	집단보건관리	DIH 1년
불란서	med.de	F2,500 P2,600	SMA(173h/m이상)	INT 4년
	Tra.	(10-30h/h/M)	SMIE	CES 2년
독일	Werkarzt	F750(5,000이상) P1,000(200이상)	기업체자율	Academy 2년
미국	Ind. Phys.	F+P 4,800	기업체자율	MIM 1년 Dr, OH 3년 Board 3년
일본	산업의	F2,000(1,000이상) P28,000(50이상)	단독(1,000이상) 개인 또는 집단 보건관리	전문의(계획) 인정산업의
한국	산업보건의	F 120(1,000이상) P 1,000(50이상)	단독 개인 또는 보건관리대행	예방의학 전문의 소정 교육필자

※ F는 전임, P는 시간제 촉탁

한편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전국 13,000개소 사업장중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위생사 수는 각각 약 2,000명이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를 위촉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약 4,000개소이고 나머지 약 5,000개소는 보건관리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그 지역의 보건관리대행 기관이 보건관리 업무를 맡아주면서 점차 전임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권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